

지역 소식통

정읍시,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농가 대상 재배교육 진행

정읍시가 최고 품질의 단풍미인쌀 생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쌀의 품질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시는 5개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3일에 걸쳐 재배교육을 가졌다. 교육에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배과정의) 전기 매뉴얼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중기 재배 이행 사항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또 소비자 안전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기준(PIS)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교육도 병행했다. 특히 질소 비료를 줄이고 적기에 거름을 할 것 등 미질 향상 재배법과 적기 물 관리 등의 매뉴얼 실천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실시

정읍소방서는 19일 연지시장에서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연지시장 입구를 시작으로 연지시장 3길을 따라 실시되었으며, 소방차량 2대, 인원 25명이 동원됐다. 훈련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통한 소방출동률 확보 ▲소방출동로 및 소방용수 시설 주변 불법 주차 차량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등이다. 정읍소방서(서장 김원철)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상인 및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 및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점자 안내서·보청기
군·읍·면 민원실 비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돕기 위해 점자 민원안내서와 보청기를 구입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점자 민원안내서는 활용도가 높은 복지분야 지원서비스 생활민원 원스톱 서비스 등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민원 내용으로 구성되어 제작·배부했다. 또한 청각장애인과 노인자를 위해 보청기를 구입해 민원신청 및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고창=김영식기자

주민들 대상 '안전보험' 호응

고창군,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실현

고창군(군수 박우정)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누구든 각종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올 2월 8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산사태, 강도,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상해 사고(만 12세 이하 아동에게만 적용) 등 7종에 대한 안전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민 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12월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두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고창군에서 1800만원을 들여 일괄적으로 납부를 완료한 상태다. 보장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애'로 구분되는데 사망보상금은 1000만원(스쿨존 교통상해사고 제외), 후유장애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후유장애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창군민은 내년 2월 8일까지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

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군청 재난안전과로 피해 상황에 대해 접수한 뒤, 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받을 수 있다. 박우정 군수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재난이 발생한 후의 조치 역시 중요하다"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한 고창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김생기 정읍시장 주요 현안사업 챙기기 '박차'

내장산위터파크 야외 물놀이시설·연지아트홀 등 사업장 현장방문 보고회 가져

김생기 시장이 주요 지역 현안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보고회를 갖는 등 현안사업 챙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이른 시간인 오전 8시 30분부터 국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내장산위터파크 일원과 농촌테마공원, 연지아트홀 건립현장 등을 방문했다. 이날 보고회는 야외 물놀이장 시설 예정 부지와 연지 아트홀 현장 방문을 통해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현장을 직접 둘러봄으로써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김 시장은 이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내장산위터파크 일원의 바닥분수 물놀이 시설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어 야외 물놀이장 시설의 적정 장소로 검토 중인 위터파크 일원과 농촌테마공원 내 대상 부지를 연이어 방문했다. 두 곳을 꼼꼼하게 살핀 김 시장은 사업 부서장과 공사 관계자, 시민들과 함께 최적의 추진 방안을 주제로 폭넓은 토론과 의견을 나눴다. 이어서 연지 아트홀 건립 현장을 방문한 김 시장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시설 준공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 등

을 보고받았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개관식과 개관 기념 축하공연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들과 함께 연지 아트홀 준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 시장은 특히 "지역문화예술인과 함께 소통하며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연지아트홀의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정읍 문화예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문화재 안전점검

정읍시가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문화재 안전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 등 지정 문화재 9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문화예술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2개 점검반도 편성했다. 배수로 정비 상태와 건축물 지붕 누수 여부, 문화재 주변 담장 등 붕괴 위험요소, 낙석 위험지역 및 수리현장과 소방·방범·전기 시설의 관리실

태 등 전체적인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보수 대상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긴급 보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규모 보수 대상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응급조치를 위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전면 보수를 계획한다. 시는 "올여름 기상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 등 이상 기후현상이 예상되고 있어 집중호우나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집

중점검을 실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에 시민 모두가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생기 시장은 "계절적 변화에 따른 문화재의 일시적 점검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점검 대책을 통해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탐방객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부안농협, 명예이장 위촉식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위해 지난 18일 부안읍 외하리 부정마을회관에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와 부정마을간 협약을 체결하려고 김원철 조합장을 비롯하여 조용환 부안읍장, 김재만 부정마을 이장 및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이장 위촉식을 가졌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기업 CEO 및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은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마을사업을 지원하는 등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운동이다. 이 자리에 조용환 부안읍장은 조철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부정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상호발전을 당부했다. 부정(翁柳)마을은 조선시대 왜구의 침탈을 막으려고 군량미 등 군수품을 보관하던 곳으로 한자를 풀이하면 가마솥마을이다.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조성철 서장은 "역사적인 마을과 해양경력이 뜻깊은 자매결연을 맺었다"며 "일손돕기 등 갖은 교류로 고령화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조합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에 부안 앞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이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기적도서관, '한 권의 책' 독서운동 '순항'

정읍기적도서관이 펼쳐고 있는 정읍시민 독서캠페인 운동인 '한 권의 책' 독서운동이 순조롭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권의 책' 독서운동은 지역 구성원 모두가 같은 책을 릴레이식으로 읽고 토론하며 공감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는 범시민 독서운동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정서적인 공감대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취지다. 시민추천과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민 투표로 선정된 올해 한 권의 책은 일반도서는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강윤중/서해문집)'이고 아동도서는 '건축, 동생 강건미(박서진/바람아아아아)'이다. 기적의 도서관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4월 8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적의 도서관은 8월에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독서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먼저, 어린이를 대상으로 3월 어린이 도서 캠페인과 12월 어린이 한 권의 책 축제를 갖는다. 각각의 프로그램에서는 독서토론과 아동도서 작가(박서진)와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4월과 5월(1박 2일)에는 청소년 연합 독서캠프를 갖는다. 고등학교 독서동아리 소속 학생들의 심도 있는 도서 토크와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 제작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캠프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뜨거운 독서 열기와 독서 성정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어 28일에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독서토론을 갖는다. 이후 9월 9일 한 권의 책 북 콘서트가 개최된다. 북 콘서트는 작은 음악회와 저자와의 북 토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694-8980
www.gangsanwine.com